

EU, 주요국의 유기농업과 관행농업 비교

네덜란드 농업경제연구원(LEI)은 올해 들어 ‘Market signals for organic farming’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유기농업 현황을 진단한 바 있다. 유기농산물 가격과 유기농 생산자의 소득 등에 대한 자료들을 관행농업 부문 자료들과 비교하면서, 유럽 유기농업의 향후 전망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1. 유기농업 생산 구조

2002년 기준으로 EU-15에서는 약 480만 ha의 경지가 유기농업에 활용되었다. 이는 전체 경지면적의 3.5%에 해당되는 것이다. 2000년에는 유기농업에 활용된 농경지 면적이 380만 ha이었다. ‘유기농업 부문’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2002년에 유기농업 경영체 수는 약 14만개 (EU-15 전체 농업경영체 수의 2% 정도에 해당됨)였다.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EU-15에서 유기농 경지면적은 100% 이상 증가했으며, 유기농업 경영체 수도 3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자료에 기초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EU에서 유기농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다.
- 그러나 ‘유기농업 부문’의 규모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다.

EU에서는 ‘관행농업’이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의 성장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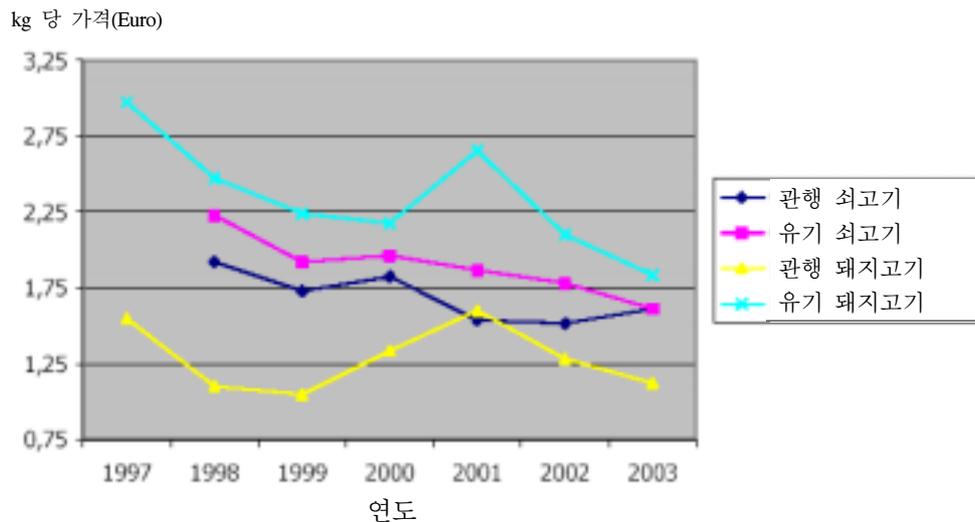
2. 유기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의 가격 비교

여러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가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유기농산물이 관행농산물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생산단위당 수확량이 더 적고 비용은 더 많이 드는데도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유럽 전역에서의 통계를 기준으로 품목마다 유기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의 가격을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아래에서는 비교가능한 몇 가지 품목을 국가별 자료를 통해 제시한다.

2.1 덴마크에서의 육류 가격

덴마크에서는 1997년부터 유기농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그림 1>은 유기축산 부문과 관행축산 부문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덴마크의 육류 가격 변화



돼지고기의 경우 독특한 주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이 높은 시기가 지나면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곤 한다. 그 주기는 약 4년이다. 유기농 돼지고기도 그와 동일한 주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유기축산 부문과 관행축산 부문의 돼지고기 가격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쇠고기 가격에서도 유기축산 부문과 관행축산 부문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유기농 쇠고기와 보통 쇠고기의 가격 차이는 돼지고기에서 나타나는 가격 차이보다 더욱 작다. 그 이유는 유기농 쇠고기 생산 비용이 관행 쇠고기 생산 비용보다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유기축산이나 관행축산이나 쇠고기 생산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다르다. 유기농 돼지고기를 생산하려면 사료 급여나 축사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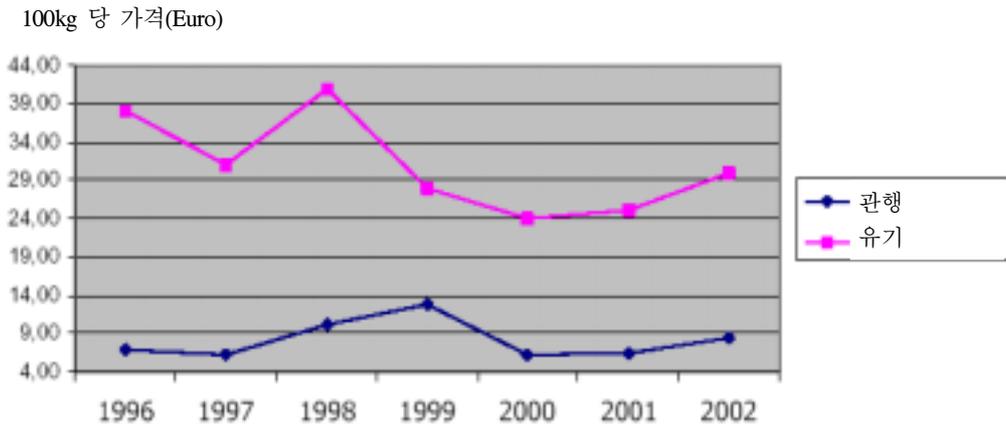
2000년 말의 광우병 사태 이후, 관행 축산방법으로 생산된 쇠고기 가격은 유기농 쇠고기 가격에 비해 크게 하락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관행축산 방법으로 생산한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으며, 따라서 가격 차이도 지금은 매우 작다. 2002년과 2003년 사이의 기간 동안 유기농 쇠고기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가격 차이가 더 줄어든 또 다른 이유는 시장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상 덴마크 육류 시장에서 유기농 육류는 과잉공급 상황이었으며, 유기농 축산물 수출도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이다.

2.2 독일에서의 감자 가격

독일에서 유기농 감자의 생산자 수취 가격은 시장의 유통단계 또는 판매 경로에 따라 다르다.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되는 유기농 감자 가격은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100kg 당 60유로 정도이다. 소매상에게 판매되는 유기농 감자 가격은 그보다 10유로 정도 더 싸다. <그림 2>는 도매상에게 판매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관행농법으로 생산된 감자와 유기농 감자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독일에서의 유기농 감자와 관행농법 감자 가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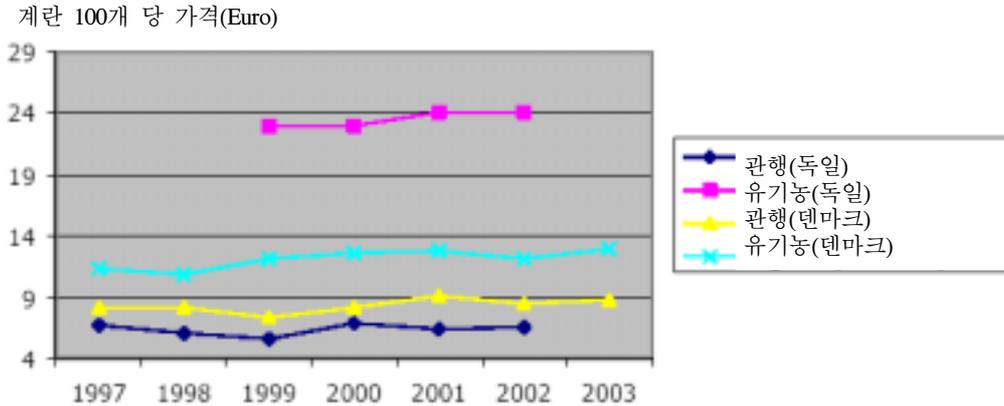


유기농 감자가 일반 감자에 비해 가격이 훨씬(100~200%) 비싸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감자 가격 변화 양상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의 기간 동안, 유기농 감자 가격 변동은 매우 심했다. 생산량 변동 외에도, 감자 품종의 변화가 그러한 가격 변동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많은 종류의 감자가 평균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시장에서 유기농 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수확기 생산량 변화가 적어도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3 독일과 덴마크에서의 계란 가격

독일과 덴마크에서 관행축산을 통해 생산된 계란 가격은 대체로 그 변화 양상이 비슷하다<그림 3>. 그러나 계란 가격이 조금만 변화해도 농업인의 소득은 큰 영향을 받는다. 유기농 최근 몇 년 동안 덴마크에서 유기농 계란과 보통 계란의 가격 차이는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보통 계란 시장과 유기농 계란 시장 사이의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덴마크와 독일에서의 유기농 계란과 일반 계란의 가격 변화



그러나 독일에서의 유기농 계란 가격과 일반 계란 가격의 차이는 덴마크에서 나타나는 것 보다 훨씬 더 크다. 독일에서 유기농 계란 가격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독일의 유기농 계란 생산자들이 주로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는 계란에는 더 많은 부가가치가 붙는다(포장, 운송, 유통 비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격이 비싼데도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에서의 우유 가격

유기농 우유 생산자들은 관행 낙농가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수취하고 있다<그림 4>. 그러나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의 상황에 비교할 때 덴마크에서 유기농 우유와 일반 우유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은 (100kg 당 4~6유로) 주목할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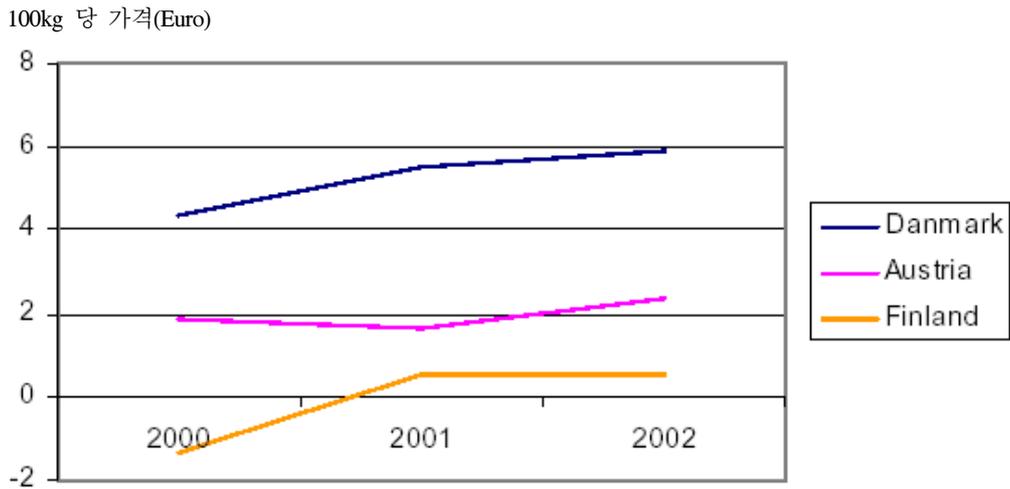
3. 농가 소득

유기농가와 관행농법 농가의 소득을 비교함에 있어, 유기농법이나 관행

농법 채택과는 무관하게 그 두 집단 간의 소득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통제되어야한다.

가령 규모, 생산물의 종류, 자연환경(조건불리지역), 농업노동자 수, 농외 소득, 보조금 등과 같은 것들이다. LEI의 보고서는 몇 가지 부문에 대해 그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농가 소득 비교 자료를 몇몇 국가들에 한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유기농 우유와 일반 우유의 가격 차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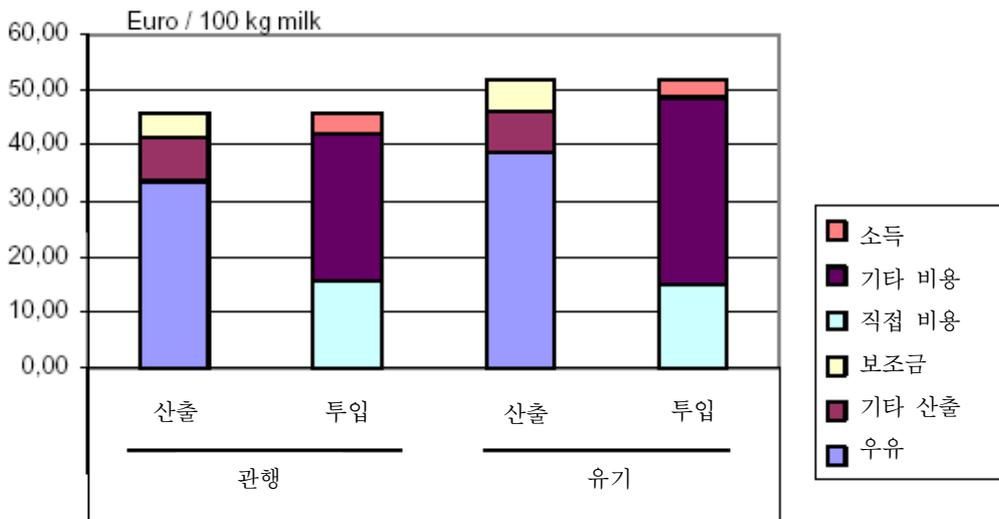
3.1 낙농

3.1.1. 덴마크

유기농 축산 농가들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볼 때 관행축산 농가들에 비해 더 크고(초지면적 기준으로 약 5%), 덜 집약적인 축산을 하고 있다. 유기농 우유 가격이 일반 우유에 비해 15% 더 높지만, 사육두수 당 소득은 더 낮았다<그림 5>. 그 이유는 상세하게 분석되지 않았지만, 덴마크에서의

유기농 쇠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유기농가에서 젖소 1두 당 유기농 우유 생산량은 관행 낙농가의 단위 산유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적다. 유기 낙농가의 노동 투입도 관행 낙농가보다 더 많은데, 그것도 대부분 임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유기 낙농가의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료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유기 낙농가가 지급받는 보조금도 관행 낙농가보다 더 많다. 특히 보조금이 관행 낙농에서 유기 낙농으로 전환하게끔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보조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기 낙농가의 소득은 관행 낙농가의 소득보다 더 낮을 것이다.

그림 5 덴마크 유기 및 관행 낙농가들의 매출 규모, 소득, 비용(2000-02)



이 같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기 축산 농가들이 얻는 소득 수준은 평균적으로 볼 때 관행 축산 농가들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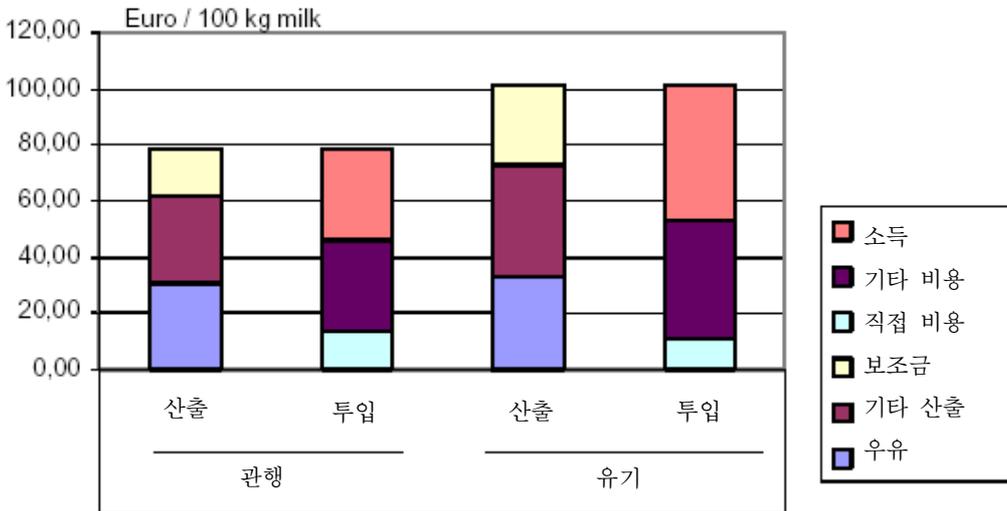
3.1.2. 오스트리아

덴마크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유기 낙농은 물량 면에

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의 유기 낙농가들도 상대적으로 넓은 초지 면적에서 낙농을 하고 있으며, 젖소 1두 당 산유량도 관행 낙농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관행 낙농가와 유기 낙농가 모두 대부분 조건불리지역(LFA)에 입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관행 낙농가의 전체 수입 중 우유로 인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이다. 유기 낙농가의 경우 32% 정도이다. 이 두 집단들 모두 직접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이들 농가들이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낙농가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설명해주는 요인이다. 이들의 소득에 있어 보조금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소득 중 매출액 비중은 덴마크의 유기 낙농가들에 비해 크지는 않다.

그림 6 오스트리아 유기 및 관행 낙농가들의 매출 규모, 소득, 비용(20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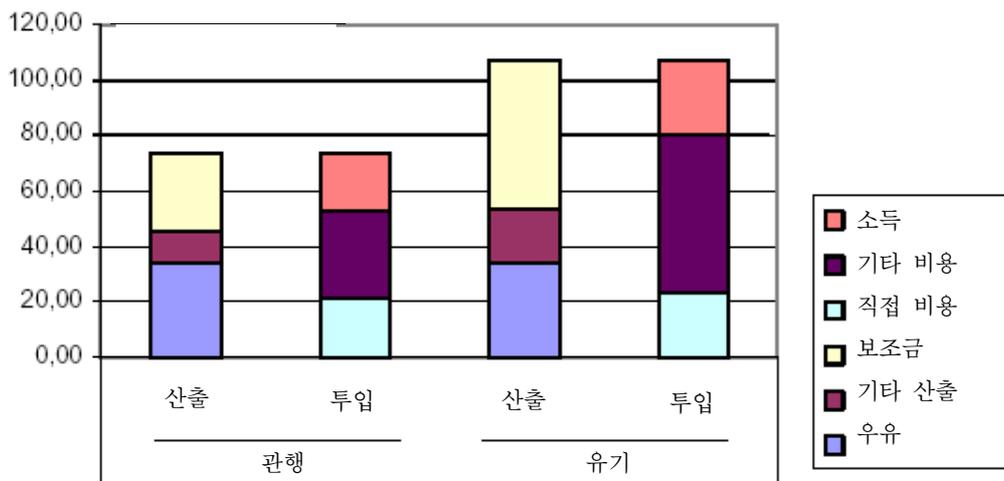


3.1.3. 핀란드

핀란드의 유기 낙농 현황은 대체로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다. 핀란드의 유

기 낙농가 규모는 작고, 덜 집약적이며, 관행 낙농가들에 비해 산유량도 적다. 그런데 유기농 우유와 보통 우유 사이에 가격 차이가 없다는 것이 특기할만하다. 유기 낙농가와 관행 낙농가 모두에 대해 높은 수준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는 모든 낙농가들이 조건불리지역 안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유한 것이다. 유기 낙농가가 지급 받는 보조금 규모는 낙농가의 매출액보다도 더 높다. 관행 낙농가들의 소득 수준이 유기 낙농가들보다 더 높지만, 우유로 인한 소득만을 놓고 볼 때에는 유기 낙농가들이 더 높다.

그림 7 핀란드 유기 및 관행 낙농가들의 매출 규모, 소득, 비용(2000-02)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세 나라에서 유기 낙농가와 관행 낙농가 사이의 농장 구조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 낙농가와 관행 낙농가를 비교하기 좋은 사례가 된다. 낙농가들의 2차적인 산출물들은 농가 소득 전체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결과로 지급되는 초지 작물과 축산에 관련된 보조금, 유기농으로의 전환에 따른 보조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 보조금의 영향은 매우 크다. 낙농가들이 받는 보조금 총액은 관행 낙농가에 비해 유기 낙농가들이 더 많다.

3.2 경종 작물

EU 회원국들마다 유기농업을 통해 생산하는 주요 작물들이 다르다. 대체로 관행농업과 비교할 때 유기농업 생산량이 현저하게 적은 작물은 곡물류였다. 그리고 사탕수수의 경우 유기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네덜란드의 유기농 경종작물 중 채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나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덴마크와 이탈리아의 유기농 부문에서는 감자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유기농 경종작물 생산량 중에서는 감자와 채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2.1. 덴마크

경종작물로 특화하고 있는 유기농가들의 경지규모는 평균적으로 볼 때 관행농가들에 비해 20% 정도 작은 편이다. 유기농가들은 토지의 대부분을 사료작물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농가들이 더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가축사육 두당 매출 규모는 관행농가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종작물 유기농가와 관행농가를 비교해보면 관행농가의 수확량이 유기농가에 비해 10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수혜 규모는 비슷하며 비용은 관행 농가가 유기농가에 비해 60% 정도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지 비용은 관행농가가 30% 더 많다. 최종적으로 두 집단의 평균 농가 소득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다.

3.2.2. 이탈리아

덴마크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경종작물을 유기농업으로 특화하고 있는 농가들의 경지 규모는 관행농가들에 비해 훨씬 더 크다. 그러나 단위면적 당 생산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가들은 관행농가들에 비해 매우 조방적인 영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집단 모두 보조금을 포함하여 연간 3만 유로 이상의 평균 조수입을 올리고 있다. 유기농가에 대한 보조금은 연간 3,000 유로 이상이다. 농가 당 비용 수준은 두 집단 간에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3.2.3. 오스트리아

경종작물 부문 유기농가의 규모는 관행농가의 규모와 비슷하다. 덴마크의 경우와 비교할 때, 오스트리아의 유기농가들은 노동 투입을 더욱 많이 하고 있다. 노동투입이 많은 만큼 오스트리아 유기농가의 총 수확량은 관행농가들에 비교해도 더 높은 편이다. 이는 주로 농업관광과 같은 2차적인 수입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조금 수혜 규모도 크다.

가족농의 소득은 유기농가들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약 4만 유로 정도에 달하고 있다. 유기농가의 1ha 당 소득은 관행농가에 비교할 때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자료: 네덜란드, LEI
(김정섭 jngspkim@naver.com 010-7339-2546 서울대학교)